20년만에 첫 연임 마크롱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프랑스 대선 15~16%P 승리
극우 성향 르펜 후보 꺾어
최연소 이어 재선 성공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44)이 24일 저녁(현지시간) 파리 에펠탑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연임에 성공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이겨 연임에 성공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날 오후 8시 마크롱 대통령이 57~58%, 르펜 후보가 41~4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엘라브는 마크롱 대통령이 57.6%, 르펜 후보가 42.4%를 득표한다고 예측했고, 입소스와 소프라스테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이 58.2%, 르펜 후보가 41.8%의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예상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와 피뒤시알도 마크롱 대통령이 58.0%, 르펜 후보가 42.0% 득표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30분 아내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을 둘러싼 샹드마르스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당선사례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기권한 유권자와 르펜 후보를 뽑은 유권자들을 향해 "이제는 한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만인의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추정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5~16%포인트로 5년 전 32%포인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연거퍼 고배를 마신 르펜 후보는 득표율 추정치가 나온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43%가 넘는다는 득표율 (추정치) 자체로 눈부신 승리"라고 자평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르펜 후보는 이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희망이 보인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르펜 후보는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도록 에너지와 인내, 애정을 갖고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결선 투표율은 72% 안팎으로 추정돼 1969년 68.9% 이후 53년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서 에마뉘엘 마크롱(44) 프랑스 대통령에게 다시 5년의 기회가 주어졌다.

만 39세였던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는 이름 앞에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

선출직 경험이 전무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새로운 중도와 제삼지대를 지향하며 전진하는 공화국(LREM)을 창당했고, 이듬해 처음 도전한 대선에서 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국립행정학교(ENA)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 재무감찰국(IGF)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로 자리를 옮겨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일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이 사회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의 캠프에 몸담았던 인연으로 2012년 엘리제궁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 신인 시절에는 직설적인 화법이 신선하고 속 시원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는 이런 스타일은 오만하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아내 브리지트(68) 여사와는 고등학생 시절 사제 관계로 처음 만나 2007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3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던 브리지트 여사는 마크롱 대통령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 전 남편을 떠났고 2006년 이혼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연합뉴스

인니 식용유 수출금지에 농민단체도 "한시적이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원료물질 수출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팜유 기업들에 이어 농민단체도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팜유농민연합(SPKS)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한시적 수출 중단 결정은 식용유를 적당한 가격에 전국에 고르게 유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팜유 기업들이 국내 수요 충족의 의무를 망각하고 수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시적 수출 금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팜유농민연합은 현지 정부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식용유 등 수출금지 조치에 '한시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강조했다.

앞서 팜유기업 단체인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도 "수출 금지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만약 길어지면 팜유 회사뿐만 아니라 생산 농가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놓았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용유 등 수출금지 정책이 길어지면 국제시장 가격 급등은 물론 인도네시아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식용유 생산국가에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월평균 전체 팜유 수출액은 30억 달러(3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팜유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인 'RBD 팜올레인'의 월평균 수출액은 27조 루피아(2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美 국무·국방 키이우 방문 젤렌스키와 회동

전쟁 발발후 미 최고위급 방문
우크라, 무기 추가 지원 촉구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회동했다고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 국무, 국방 장관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현장을 찾은 것이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정상이 러시아가 물러난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단 회담에 나선 이후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문을 희망했지만, 백악관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행에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사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방문 사실을 공개한 뒤 무기와 안전 보장 모두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미국 측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빈손으로 우리를 찾아올 순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단지 선물이나 일종의 케이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물건과 구체적인 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측의 지원을 호소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도 이날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학살된 부차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이 무기를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로 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2주 새 12억 달러의 무기 지원을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지금까지 모두 33억 달러의 군사 지원에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

우크라 공격 중단 촉구하는 교황 앞의 갈매기

갈매기 한 마리가 24일(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바티칸 사도궁 집무실 창가에서 삼종기도를 주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앞을 날아가고 있다.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신자가 많은 정교회 부활절인 이날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했다"면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디 공격을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연합뉴스

인니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경보단계 3단계로 격상

지난 2018년 쓰나미를 유발해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활동이 최근 활발해지면서 당국이 경보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25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의 화산섬 아낙 크라카타우 경보 단계(1~4단계)를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는 평온을 유지하되, 당국의 예보와 지시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보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접근 금지 구역이 분화구 주변 2㎞에서 5㎞로 확대됐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섬은 올해 초부터 활발한 활동을 보여 '대폭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재난 당국은 순다해협을 지나는 선박과 자바섬 반튼주 안예르 등 해안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언제든 대규모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며 올해 1월 주의령을 내렸다.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전날 경보 단계 격상 전후로 여러 차례 분화했다.

특히 24일 오후 8시20분께 정상에서 3㎞ 높이의 두꺼운 화산재 기둥을 뿜어냈고, 용암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